

# 문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문화적 생존시대, 상식이 문화가 된다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문화를 이야기 하는 다양한 관점과 논리들, 그리고 정책 - 삶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정책과 지향들. 근래에 들어 생활문화와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작업들이 한창이다. 그렇지만 문화를 이야기 하는 정책과 사업들만 보이고 철학은 실종 되어가는 것 같다. 자기 고민이나 현장을 깊게 바라보면서 만들어져야 하는 정책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내용에만 국한되어 가치화 시키려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일상과 자발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책과 사업이 주도하는 형국에 직면하게 만든다. 한국사회가 정치가 주도하면 정책의 방향타는 사회, 경제,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일사분란하게 자기 지향점에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생산 된 정책은 여전히 핵심 권력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을 찾는다. 그런 정책의 흐름을 앞서 갈 수 있는 대안은 현장의 역량과 사회적 가치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다. 그런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상의 품격을 높이면서 관계의 질서를 찾아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상식적 문화라 일컬을 수도 있겠다.

상식은 사람들 속에서 합의하고 양해하고 동의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동의와 합의를 통해서 정착 되어지는 일상은 상식으로 자리 잡고 그 상식이 겹겹이 쌓인 경험의 시간으로 문화가 된다. 문화는 생각과 경험의 공유지가 만들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 경험의 공유지에서 재미·의미·게미(전라도 말로 깊은 맛을 의미함)를 더해 가는 과정에서 가치가 만들어 진다. 가치는 사회적 동의를 통해 상식이 되고 상식은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화가 된다. 우리는 일상의 공유를 통해 상식을 뛰어 넘어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런 일상의 문화와 인간 생존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본다.

- 하나 - 생존
- 둘 - 생활
- 셋 - 문화

홀로 산다는 것은 생존법이다. 둘이 같이 산다는 것은 삶의 관계와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셋이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관계의 문화가 만들어지며 시간을 담는다. 활동의 재미와 의미에 가치를 더해가는 과정이다. 일상이나 생활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 할 수 있을까?

## 생존시대의 홀로족

생활이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생존이다. 모든 삶의 활동과 의미가 생존으로 직결되는 시대와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알아서 각자도생.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대를 대변하고, 모든 활동의 목적과 이유를 포섭 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는 생존법 외에는 다른 어떠한 가치도 중심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냈다. 생존법은 자본으로 직결 되는 로드맵을 구축 한다. 그 로드맵에는 인간사회의 가치와 관계의 질서는 염두에 둘 수 없다. 경쟁사회에서의 생존법들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정착 시킨다. 우리에게

게 다른 생각이나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장치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 싸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쇠뇌 시킨다. 그런 시간 속에서 다음세대와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에서 이제 세대간의 갈등을 심해지고 같이 삶의 의미는 퇴색해 가고 있다. 그렇게 살다보니 삶의 의미나 재미가 없어진다.

## 생존에서 생활로 - 생활문화로부터 출발해보자

사회적 현상과 달리 인간은 각자도생이란 개념이 쉽게 적용 가능한 존재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 존재하는 같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부응하게 하는 개념이 일뿐이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독자생존의 방식보다는 상생의 원리를 적용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불어 사는 재미와 의미를 찾게 된다. 그래서 마을도 공동체도 관계의 문화도 만들어 진다. 그 단계는 생존에서 생활로 넘어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생존에서 생활로 넘어가는 경험을 문화적으로 해석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지원제도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전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응원과 참여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판으로 장이 형성되면서 전 국민들이 참여하고 일상으로 나누는 보편적 상식과 문화의 경계로 풀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만 삶의 질을 고민하거나 생각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리 잡는 것 같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정책적 응원과 노력이 현장과 만날 때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패턴보다 빠른 세상의 흐름은 그런 여유를 만들어 내기에 버거워 보인다.

이제 삶의 문화에 대한 자기 견해들을 모아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생활문화를 지역문화로 등치시키는 시대에 살면서 어떤 담론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삶의 문화, 생활문화, 일상문화, 지역문화, 시대 문화, 인문가치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단어와 개념들이다. 이들 단어의 개념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정된 언어체계를 되짚어보고 궁금해 하는 과정이 사실과 만나는 것이다.'

사실은 개념의 토대다. 개념은 사실을 규정하고 확장해 나간다. 스쳐지나가는 것들, 사소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자. 잘 들여다봤을 때 사실과 만날 수 있고 변화가 시작된다. 그럴 때 고정된 사고와 언어체계를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사실과 더 잘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합의 하고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와 관념,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 속도가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 서는 시대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 3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 - 문화

인간과 관계의 속도를 찾아 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자본과 과학은 인간 내면보다는 생산된 가치 중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이란 선언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인간사회 스스로의 관계와 자기 질서, 그리고 삶의 속도를 회복할 때 가능해 보인다. 그것이 인간사회의 문화이고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셋이 모여서 사회적 반응과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관계에서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되는 마을을 꿈꾸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마을과 지역은 개인지들이 모여 공유지가 되고 그 공유지들이 모여 진화된 문화와 관계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활의 한편에서는 밥만 먹고 살수 없다는 이야기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어떤 엄혹한 시절에도 우리에게는 웃음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여유와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끈끈한 밀착점들을 만들어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관계방식들이 생활이란 개념어를 일상의 의미화 내지는 이유로 정리하곤 했었다.

그렇게 살아내던 시절 후에 우리에게 조금은 숨 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기고 나니, 이제는 일과 삶의 관계에서 일과 다른 관계의 시간들이 필요해진다. 그 관계의 시간을 원활하게 해주는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들이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인간다움의 면면을 다시 보게끔 하는 시간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시간으로 축적될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문화라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응원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활동이 가치롭게 작동되기를 고대해 본다. 그 안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지역민들과 관계 맺고, 일상의 가치에 더하기와 곱하기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